

# 정치참여의 유형 비교

## : 수도권 시민의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 분석\*

이재철 | 동국대학교(서울)

###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수도권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치참여의 두 유형인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대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관습적 정치참여에는 50대 이상이 적극적이었던 반면 비관습적 정치참여에는 20대가 적극적이었다. 둘째,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집단과 소극적이었던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정치 관심, 정치 지식, 내적 정치적 효능감, 정치 정보, 정당 선호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외적 정치적 효능감, 민주주의 선호, 국정운영 평가, 경제상황 평가 등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셋째,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결정요인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관습적 정치참여에는 정치 관심, 정치 효능감, 정치 정보, 정당 선호, 민주주의 선호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결정한 요인은 정치 관심, 정당 선호, 국정운영 평가 등이었다.

주제어 | 정치참여,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쏠밭집회, 투표

\* 이 논문은 2018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뤄졌음.

## I. 서론

시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와 정치엘리트들의 책임성과 반응성이 향상된다(이숙종 외 2010). 또한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개인의 잠재능력 계발에 도움이 되며 시민적인 덕성을 함양한다는 견해도 있다(박찬욱 2005; Pateman 1970). 심지어 시민의 정치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는 주장도 있다(Easton 1990). 한국을 비롯한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가 가능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이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경우 정치과정에서 개인 혹은 공동체의 선호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우며 심지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박찬욱 2005; 배정현 2014; Putnam 2000).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선거 과정에서 투표행위로 나타나는 관습적 정치참여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집회·시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김욱 2013; Kim 2014). 특히 한국사회에서 촛불집회는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여학생이 사망하면서 한국사회는 처음으로 대규모의 촛불집회를 경험했다. 이후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이 공개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공개된 이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인 규모로 다시 발생했다. 최근 들어 서울 서초동 및 여의도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현 정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이렇듯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선거에서의 투표 이외에도 항의 및 지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학계에서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습적 정치참여로 분류되는 투표행위에 대한 이론적·계량적 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대표적 유형인 시위나 항의 등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나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작됐다. 특히 본 연구는 비관습적 정치참여 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sup>12)</sup>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에 따른 시민의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관습적 정치참여 및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소로서의 정치적 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서론에 이은 II장에서는 정치참여에 대한 개념정의와 정치참여 두 유형의 관계,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소개했다. III장에서는 논문이 분석할 자료의 변수측정 및 분석모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IV장에서는 관습적, 비관습적 정치참여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또한 두 유형의 정치참여의 관계 및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 결론인 V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한 발견을 요약했다.

---

12) 관습적,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비교연구로는 김기동 외(2019), 김욱(2013), 조진만(2017), Kim(2014)등이 있다.

13) 이 논문의 기본적인 연구는 이재철(2017; 2018)에서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두 논문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논의

### 1. 개념정의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시민의 정치와 관련된 행위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인식, 정치적 감정 등은 정치참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류태건 2013; 어수영·곽진영 2002; Conge 1988; Parry et al. 1992). 그러나 정치참여의 개념에 어떤 형태의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는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정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나 정치에 대하여 토론하는 행위를 정치참여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반면 일부 연구자는 이런 행위들을 정치참여의 개념에서 제외시킨다. 이와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런 행위를 정치참여의 경계선에 있는 준(準)참여 행위로 간주하여 정치참여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다(박찬욱 2005; Verba et al. 1978). 또한 정치참여의 개념은 정치개입이나 정치관여 등과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는 단순하게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정치참여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행위의 포함 범위가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정확성에 치우쳐 정치참여에 대한 범위를 비교적 좁게 정의한다. 예를 들어 버바와 니(Verba and Nie 1972)는 정치참여를 “정부 공직자의 선출 그리고(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버바 등(Verba et al. 1978)도 “정부 공직자의 선출 그리고(또는) 공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반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여 정치참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이해한다.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정치참여는 투표참여 등과 같은 선거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국한될 수 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정치참여를 편협하게 개념 정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정치참여는 다양한 문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참여를 정의할 때 정확성뿐만 아니라 보편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팅턴과 넬슨(Huntington and Nelson 1976)은 정치참여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시민의 행동”, 셰릴과 보글러(Sherril and Vogler 1982)는 “시민이 어떤 일을 통해 공공정책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공직 선출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치참여에 대한 정의에서 행위의 포함 범위는 정부에서 정치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정치참여를 밀브래스와 고엘(Milbrath and Goel 1977)은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시민의 행동”으로 이해했고, 카세와 마쉬(Kaase and Marsh 1979)는 “정치 체제의 다양한 수준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 브래디(Brady 1999)는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행동”,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and Hansen 2003)은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유권자의 행동”으로 정의했다. 부스와 셀리그슨(Booth and Seligson 1979)은 정치참여의 개념이 더 광범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참여를 “공공재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도하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의 개념 정의는 공직자의 선출 및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부터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까지 확대됐다. 즉 연구자들은 개념 정의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면서 정치참여에 시위나 항의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반스 등(Barnes et al. 1979)의 연구에서 정치참여는 시위, 폭력, 시민 불복종 등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넬슨(Nelson 1979)도 정치참여의 개념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도 포함시킨다. 사회에서 시민의 시위, 항의, 시민 불복종 등과 같은 행위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참여는 개념을 정의하는 수준 및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자들에 따라서 정치참여의 유형은 다양하게 소개됐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정치참여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4)</sup> 즉 관습적

(conventional) 참여와 비관습적(unconventional) 참여가 그것이다. 관습적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버바와 니(Verba and Nie 1972), 버바 등(Verba et al. 1978)이 개념 정의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습적 정치참여는 참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정의하는 정치참여의 유형이다. 특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외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행위,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공직자 및 정치인과 접촉하는 행위, 정당에 참여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를 후원하는 행위 등을 관습적 정치참여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시위나 집회 등 정치적 항의의 성격이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관습적 정치참여에 비해 높은 자발성을 요구한다. 연구자에 따라 항의의 형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밀브래스와 고엘(1977)의 연구에서 항의는 시위, 폭동,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집회, 불공정한 법규 준수의 거부 등을 포함한다. 반스 등(Barnes et al. 1979)은 항의에 언론에 편지를 쓰는 행위, 공과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 점거 농성, 교통 방해, 서명 운동, 보이콧, 기물 파손, 파업 등도 항의행위에 포함한다. 이외에 낙서, 대자보,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이용한 반대 활동 등도 항의 행위로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류태건 2013). 이와 같이 항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의로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 2. 관습적 ·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관계

민주주의 체제에서 바람직한 참여의 유형은 관습적 정치참여만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정당이나 이익집단 등과 같은 정치제도를

---

14) conventional과 unconventional에 대하여 통상적·비통상적(박찬욱 2005), 관례적·비관례적(이숙중 외 2010)으로 번역한 연구도 있다. 정치참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김욱(2013), 류태건(2013), Kim(1980) 등을 참고할 것.

15) 개념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재철(2017)을 참고하였다. 개념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할 것.

거쳐 여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즉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인 정치적 항의는 법률을 위반할 수 있고 폭력을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시위나 항의는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법률을 준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정치적 항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폭력이나 비합법적인 행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정치과정에서 시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박찬욱 2005, 152).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보다 정부의 책무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허석재 2015). 또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투표와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위, 항의, 탄원서 서명 등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Norris 2002).

그렇다면,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확대를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도 대의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언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만이론(disaffection theory)과 정치자원이론(political resource theory)으로 구분된다.<sup>16)</sup>

불만이론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대체재로 이해하며, 정치자원이론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보완재로 이해한다. 불만이론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 혹은 속의 민주주의 등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지호 외 2017). 즉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거나 신뢰가 낮은 경우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동 외 2019). 예를

16) 불만 이론과 정치자원 이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동 외(2019)와 이지호 외(2017)를 참고할 것.

들어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경제성장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경우 비관습적 정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체제 또는 정부의 이념 성향과 자신의 이념 성향과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자신의 이념이 체제의 이념 성향과 거리가 먼 경우 투표 참여 등 관습적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다(김기동 외 2019; 이지호 외 2017).

반면 정치자원이론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의 민주주의 한계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냉소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불만이론과 같다. 그러나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경험으로 인하여 시민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는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이지호 외 2017). 특히 정치자원이론에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듯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습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비관습적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원이론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보완재로 이해한다(김기동 외 2019).

### 3. 정치참여의 결정요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및 정보, 정치적 효능감과 같은 정치적 태도, 정당 선호와 같은 당파적 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치적 신념, 체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과 같은 정치적 평가정향 등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에

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정치에 관심이 높은 시민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동원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Verba et al. 1979). 정치에 대한 지식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은 특정한 이슈나 정책에 대하여 선호를 형성하게 한다. 심지어 정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유권자는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Eveland and Scheufele 2000). 정치적 효능감도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반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 이밖에 정보화도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정보통신의 발전이 정치에 대한 시민의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고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다. 즉 정보화의 발전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을 낮춰 정치참여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조진만 2011; 최종호 외 2011).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당 일체감 혹은 정당 선호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정한 정당에 대하여 선호가 분명한 당파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정당에 대하여 아무런 선호가 없는 무당파층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 지식, 정보가 많으며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치적 신념도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신념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체제의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도 정치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제의 정책적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하여 평가의 강도가 강할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적이 모습을 나타낸다. 특히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가 강한 시민일수록 이들의 불만과 요구를 정치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 III. 연구 디자인

#### 1. 분석 자료

본 논문은 연구 질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직후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를 사용했다. 특히 본 논문이 분석한 대상은 전국 1,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서울특별시(249명), 경기도(283명), 인천광역시(59명)에 거주하는 응답자(이하 수도권 유권자) 591명이다.<sup>17)</sup>

#### 2. 변수 조작화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이다. 관습적 정치참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참여 여부,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여부로 측정했다. 관습적 정치참여는 “선생님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는 “투표했다.”=1 또는 “투표하지 않았다.”=0으로 조작화했다.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항의 즉 집회 참여로 측정했고, “선생님께서 촛불집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있다.”=1, “없다.”=0으로 조작화했다.

---

17)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특히 본 논문이 수도권 유권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종류의 정치참여를 비교적 균형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2016~2017년 발생했던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집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집회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정치 관심, 정치 지식, 정치적 효능감, 정보화, 정당 선호, 민주주의 선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다. 정치 관심은 “선생님께서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는 1, “매우 많다.”는 4로 조작화했다. 정치 지식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정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의 여부로 측정했다. 두 문항에 대하여 모두 틀린 경우는 1, 한 문항만 맞춘 경우는 2, 모두 맞춘 경우에는 3으로 조작화했다. 정치적 효능감은 내적 정치적 효능감 및 외적 정치적 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내적 정치적 효능감과 외적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와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의 문항을 사용했고 효능감이 적으면 1, 많으면 4로 조작화했다. 정보화는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SNS를 얼마나 활용하셨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하여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1, “매우 많이 활용했다.”는 4로 조작화했다. 정당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생님께서서는 가깝게 느끼는 특정 정당이 있습니까?”와 “(위 문항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의 두 문항을 사용했고 3점 척도로 조작화했다.<sup>18)</sup> 민주주의 선호는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낫다.”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문항에 대하여 “매우 반대”는 1, “매우 찬성”는 4로 조작화했다. 체제의 정치적 성과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경제적 성과는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측정했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18) 정당에 대한 선호도 따라서 정당 지지파, 편향적 무당파, 무당파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정당 지지파(3점)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정당에 대한 어떤 선호도 표현하지 않는 유권자는 무당파(1점)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정당에 대하여 인지하지만 특정한 정당에 대한 귀속감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향적 무당파(2점)로 분류할 수 있다.

는 “선생님께서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에 대하여 “매우 잘못했다.”는 1로부터 “매우 잘했다.”는 4로 조작화했다.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선생님께서서는 박근혜 정부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에 대하여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졌다.”는 1, “이전과 비슷하다.”는 2, “매우 좋아졌다.”와 “좋아졌다.”는 3으로 조작화했다.

### 3) 통제변수

성별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은 각각 0과 1로 조작화했다. 연령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교 재학/졸업”,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혹은 이상” 등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소득수준은 가족의 한 달 소득으로 측정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미만”,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등 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작화했다. 이념 성향은 “정치 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선생님께서서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0은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보수를 나타냅니다.”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본 논문에서 0~3은 진보, 4~6은 중도, 7~10은 보수를 의미하며 각각 1, 2, 3으로 조작화했다.

## IV. 분석 결과

### 1. 인구 사회학적 분포

<표 1>은 투표참여(관습적 정치참여)와 촛불집회 참여(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서의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성향 등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투표참여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분포를 분석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권자 가운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91명 가운데 473명(80.0%)이었다.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비율을 성별로 비교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 5% 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 투표율은 50대가 8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83.8%로 높았다. 다음으로 40대, 60대의 순서였다.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은 71.6%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4년제 대재 이상이 85.8%로 가장 높았고, 중졸이 44.0%로 가장 낮았다. 또한 소득수준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견됐다. 투표참여는 고소득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저소득층이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투표에 참여한 모습은 차이를 나타냈다. 투표율에 대하여 보수 성향의 응답자와 진보 성향의 응답자를 비교하는 경우 약 15% 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응답자의 투표참여 비율이 91.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응답자 가운데 투표에 참여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76%로 가장 낮았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투표참여에서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 사회학적 변수 즉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성향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촛불집회의 참여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분포를 분석했다(<표 1> 참고). 수도권 응답자 591명 가운데 116명(19.6%)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투표에 참여한 비율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다. 이들을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22.4%)이 여성(16.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비교하는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비율은 20대(44.1%)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8.3%)에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비교적 고학력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중졸 이하) 가운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대학 재학 이상

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28.3%)정도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소득 수준별로 비교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교적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층의 비율은 낮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비율은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도 성향 17.9%, 보수 성향 3.2%의 순이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유권자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의 차이는 매우 컸다. 마지막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성향 등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1〉 인구 사회학적 분포

(단위: %)

		투표참여	$X^2$	촛불집회 참여	$X^2$
성별	남성	82.8	2.65	22.4	2.80†
	여성	77.4		16.9	
연령별	19세/20대	71.6	13.17*	44.1	57.60***
	30대	83.8		24.3	
	40대	80.7		15.3	
	50대	88.5		11.5	
	60대 이상	75.0		8.3	
교육수준	초졸	--	25.75***	--	28.53***
	중졸	44.0		0.0	
	고졸	79.2		11.3	
	전문대재 이상	77.5		23.5	
	4년제 대재 이상	85.8		28.3	
소득수준	199만 원 이하	50.0	38.31***	3.3	15.03**
	200~299만원	62.3		6.6	
	300~399만원	80.7		21.5	

	400~499만원	80.7		20.0	
	500~599만원	89.6		22.4	
	600만 원 이상	85.7		25.7	
이념	진보	91.2	13.58***	37.5	50.10***
	중도	77.2		17.9	
	보수	76.0		3.2	
N	591				

† <0.1; \* <0.05; \*\* <0.01; \*\*\* <0.001

## 2. 정치 관심

<표 2>는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른 정치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수도권 유권자들은 비교적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투표에 참여한 수도권 거주 유권자 가운데 72.4%(“매우 많음” 17.8%, “조금 있음” 54.6%)는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정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절대 다수(81.9%)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특히 투표에 참여하고 촛불집회에도 참여했던 시민의 경우 85.5%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분석에 포함된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정치적 관심을 표현했다.<sup>19)</sup>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촛불집회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시민의 경우 매우 낮은 정치적 관심(19.1%)을 표현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해 투표와 촛불집회 모두 참여한 집단의 비율 27.2%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서 정치 관심도의 차이는 분명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 때문이다.

19) 정치참여의 유무에 따라 응답자를 투표참여, 집회참여, 모두참여, 불참 등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정치 관심

(단위: %)

	매우 많음 (A)	조금 있음 (B)	A+B	별로 없음 (C)	전혀 없음 (D)	C+D	$X^2$
투표참여	17.8	54.6	72.4	25.2	2.5	27.7	142.64***
집회참여	25.9	56.0	81.9	15.5	2.6	18.1	
모두참여	27.2	58.3	85.5	11.7	2.9	14.6	
불참	2.9	16.2	19.1	59.1	21.9	81.0	

\* &lt;0.05; \*\* &lt;0.01; \*\*\* &lt;0.001

### 3. 정치 지식

정치에 대한 지식도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수도권 거주 유권자 가운데 40.4%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맞췄고, 57.7%는 한 문항에 대해서만 정답을 말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도권 유권자 가운데 약 45%는 두 문항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집단별로 비교하는 경우 촛불집회와 투표에 모두 참여한 시민의 정치 지식은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네 집단 가운데 두 문항을 모두 맞힌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촛불집회 및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정치참여도가 매우 낮은 유권자의 경우 정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두 문항에 대하여 옳게 응답한 비율(23.8%)이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촛불집회와 투표에 모두 참여한 집단과 비교하는 경우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카이검정 결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정치 지식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표 3〉 정치 지식

(단위: %)

	높음	중간	낮음	$X^2$
투표참여	40.4	57.7	1.9	18.06**
집회참여	44.8	54.3	0.9	
모두참여	48.5	50.5	1.0	
모두불참	23.8	72.4	3.8	

\* &lt;0.05; \*\* &lt;0.01; \*\*\* &lt;0.001

#### 4. 정치 효능감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수도권 유권자의 66.4%는 내적 정치적 효능감을 표현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분석에 포함된 네 집단 가운데 촛불집회와 투표 모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가장 높은(73.8%) 내적 정치적 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두 유형의 정치참여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도권 유권자 가운데 내적 정치적 효능감을 표현한 비율은 40.0%로 낮은 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들을 촛불집회와 투표 모두 참여한 유권자와 비교하면 26%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외적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두 유형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유권자는 외적 정치적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투표 및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유권자는 외적 정치적 효능감이 낮았다. 두 종류의 정치적 효능감을 비교하면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내적 정치적 효능감은 외적 정치적 효능감보다 높았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거나 혹은 수직적 책임성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카이 검정 결과에서도 두 종류의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정치적 효능감

(단위: %)

		매우 공감 (A)	대체로 공감 (B)	A+B	별로 공감 않음 (C)	전혀 공감 않음 (D)	C+D	$X^2$
내적	투표참여	6.3	27.3	33.6	47.4	19.0	66.4	42.78***
	집회참여	4.3	25.9	30.2	44.8	25.0	69.8	
	모두참여	2.9	23.3	26.2	46.6	27.2	73.8	
	모두불참	8.6	51.4	60.0	36.2	3.8	40.0	
외적	투표참여	20.9	47.6	67.6	29.4	2.1	31.5	33.60***
	집회참여	19.8	47.4	67.2	26.7	6.0	32.7	
	모두참여	18.5	47.6	66.1	28.2	5.8	34.0	
	모두불참	36.2	52.4	88.6	10.5	1.0	11.5	

\* <0.05; \*\* <0.01; \*\*\* <0.001

## 5. 정치 정보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정치정보를 얻는 수단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 가운데 36.4%(“매우 활용” 3.4%, “활용한 편” 33.0%)는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화 기기를 사용했다. 특히 촛불집회와 투표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정보화 기기를 많이 사용했다. 이들 가운데 과반(57.3%)은 정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화 기기를 사용했다고 표현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보화 기기를 사용한 비율(54.3%)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촛불집회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정보화 기기를 사용한 비율(5.7%)이 매우 낮았다.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들을

촛불집회와 투표에 모두 참여했던 유권자와 비교하는 경우 정보화 기기의 사용 비율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두 집단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른 정보화 기기의 사용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5> 정보화 기기 사용

(단위: %)

	매우 활용 (A)	활용한 편 (B)	A+B	별로 안함 (C)	전혀 안함 (D)	C+D	$X^2$
투표참여	3.4	33.0	36.4	30.9	32.8	63.7	84.90***
집회참여	5.2	49.1	54.3	19.8	25.9	45.7	
모두참여	5.8	51.5	57.3	17.5	25.2	42.7	
모두불참	0.0	5.7	5.7	25.7	68.6	94.3	

\* <0.05; \*\* <0.01; \*\*\* <0.001

## 6. 정당 선호

<표 6>은 정치참여 유형에 따른 정당 지지파, 편향적 무당파, 무당파의 분포를 보여준다.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가운데 50.7%는 특정한 정당에 대하여 선호도를 표시한 정당 지지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선호를 표현하지 않은 유권자는 32.7%를 차지했고, 정당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정한 정당에 대하여 귀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향적 무당파는 17.6%였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권자의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파로 분류할 수 있는 비율(61.2%)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당 선호에 대한 강도의 순서는 투표에 참여한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이 보여준 정당에 대한 선호 성향은 정당 지지파 다음으로 편향적 무당파의 비율(21.6%)이 높았고, 무당파의 비율(17.2%)은 가장 낮

았다.

투표와 촛불집회 등 두 유형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유권자의 경우 정당 지지파의 비율(65.1%)이 분석에 포함된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고, 무당파의비율(13.6%)은 가장 낮았다. 반면 투표와 촛불집회 등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수도권 유권자를 분석하면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투표와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수도권 시민 가운데 정당 지지파로 분류할 수 있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1명(9.5%)으로 다른 집단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이 집단에서 절대 다수(84.8%)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였다.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른 정당 선호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 6>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 선호에 대하여 집단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표 6> 정당 선호도

(단위: %)

	무당파	편향적 무당파	정당 지지파	$X^2$
투표참여	31.7	17.6	50.7	118.97***
집회참여	17.2	21.6	61.2	
모두참여	13.6	21.4	65.1	
모두불참	84.8	5.7	9.5	

\* <0.05; \*\* <0.01; \*\*\* <0.001

## 7. 민주주의 선호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했다. <표 7>은 민주주의 선호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정치참여의 첫 번째 유형인 투표참여자는 절대 다수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선호를 표현했다. 즉 투표참여자 가운데 84.1%가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낮다.”는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며 민주주의에 대하여 지지를 표현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도권 유권자의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모습은 비슷했다. 단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촛불집회 참여자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강한 선호를 표현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 반면 촛불집회와 투표에 불참한 수도권 유권자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하여 선호를 표현한 비율은 71.4%(“매우 동의” 16.2%, “대체로 동의” 55.2%)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약 30%는 같은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체제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성과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던지 혹은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7〉 민주주의 선호

(단위: %)

	매우 동의(A)	대체로 동의(B)	A+B	대체로 반대(C)	매우 반대(D)	C+D	$X^2$
투표참여	26.2	57.9	84.1	15.9	0.0	15.9	16.82†
집회참여	30.2	53.5	83.7	16.4	0.0	16.4	
모두 참여	31.1	53.4	84.5	15.5	0.0	15.5	
모두 불참	16.2	55.2	71.4	27.6	1.0	28.6	

† &lt;0.1; \* &lt;0.05; \*\* &lt;0.01; \*\*\* &lt;0.001

## 8. 국정운영 평가

정치참여 유형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표 및 촛불집회 등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집단이나 소극적이었던 집단이나 구분 없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정부의 정치적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특히 국정 운영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집단별로 차이가 컸다. 촛불집회와 투표에 모두 참여한 집단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성과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약 85%였다. 반면 모두 불참한 집단의 비율은 41.0%이었다. <표 8>의 카이제곱 분석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표 8>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단위: %)

	매우 잘했음 (A)	대체로 잘했음 (B)	A+B	대체로 잘못했음 (C)	매우 잘못했음 (D)	C+D	$X^2$
투표참여	0.2	7.2	7.4	33.4	59.2	92.6	52.76***
집회참여	0.0	3.4	3.4	12.1	84.5	96.6	
모두참여	0.0	3.9	3.9	10.7	85.4	96.1	
모두불참	0.0	7.6	7.6	51.4	41.0	92.4	

\* <0.05; \*\* <0.01; \*\*\* <0.001

## 9. 국가 경제상황 평가

<표 9>는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평가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수도권 유권자들은 국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의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표현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1.5%,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및 두 유형의 정치참여에 모두 참여한 경험자 가운데 0.9%만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촛불집회와 투표

에 모두 참여한 집단과 모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는 각각 91.2%와 73.4%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9〉 국가 경제 상황 평가

(단위: %)

	매우 좋아졌음 (A)	좋아졌음 (B)	A+B	이전과 비슷함	나빠졌음 (C)	매우 나빠졌음 (D)	C+D	$\chi^2$
투표참여	0.0	1.5	1.5	20.8	52.2	27.3	79.5	19.60*
집회참여	0.0	0.9	0.9	12.1	59.5	27.5	87.0	
모두 참여	0.0	1.0	0.9	7.8	62.1	29.1	91.2	
모두 불참	0.0	1.0	1.0	25.7	52.4	21.0	73.4	

\* <0.05; \*\* <0.01; \*\*\* <0.001

## 10. 정치참여에 대한 결정 요인

마지막으로 어떤 요인이 수도권 유권자의 관습적 및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인 투표참여와 촛불집회의 참여 여부는 이항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먼저 본 논문에서 관습적 정치참여로 분류한 투표참여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섯 개 독립변수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표 10>의 분석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들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제도가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 믿을수록, 정보화 기기를 통해 정치 혹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수록,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 감정이 확실할수록,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할수록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투표참여에 적극

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분류한 촛불집회의 참여에 대하여 분석했다. <표 10>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독립변수가 촛불집회의 참여를 결정한 요인이었다. 수도권 유권자 가운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 촛불집회의 참여를 결정한 요인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같이 정치적 성과에 대한 견해도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즉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분노한 유권자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결정 요인

	관습적(투표) 참여		비관습적(촛불집회) 참여	
	계수	한계효과	계수	한계효과
정치 관심	0.899*** (0.202)	0.078 (0.018)	0.383* (0.189)	0.039 (0.019)
정치 지식	0.010 (0.271)	0.001 (0.023)	0.031 (0.253)	0.003 (0.026)
내적 정치적 효능감	0.321† (0.170)	0.028 (0.015)	0.021 (0.157)	0.002 (0.016)
외적 정치적 효능감	0.389* (0.191)	0.034 (0.016)	-0.019 (0.172)	-0.002 (0.018)
정보화	0.527** (0.192)	0.046 (0.017)	0.229 (0.147)	0.023 (0.015)
정당 선호	0.920*** (0.173)	0.080 (0.015)	0.640*** (0.158)	0.065 (0.016)
민주주의 선호	0.392† (0.202)	0.034 (0.018)	0.015 (0.188)	0.002 (0.019)

국정운영 평가	-0.063 (0.237)	-0.005 (0.020)	-0.926*** (0.265)	-0.094 (0.026)
경제성과 평가	0.347 (0.304)	0.030 (0.026)	-0.300 (0.359)	-0.031 (0.037)
성별	-0.265 (0.288)	-0.023 (0.025)	0.085 (0.260)	0.009 (0.026)
연령	0.384** (0.126)	0.033 (0.011)	-0.458*** (0.113)	-0.047 (0.011)
교육수준	0.058 (0.189)	0.005 (0.016)	-0.058 (0.172)	-0.006 (0.018)
소득수준	0.306** (0.111)	0.026 (0.010)	0.100 (0.101)	0.010 (0.010)
이념 성향	-0.524* (0.258)	-0.045 (0.022)	-0.613** (0.214)	-0.062 (0.022)
N	585		585	
LR $X^2$	20.10***		138.16***	
Pseudo $R^2$	0.34		0.24	

† <0.1; \* <0.05; \*\* <0.01; \*\*\* <0.001,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11. 요약 및 시사점

우선 관습적 정치와 비관습적 정치에 참여한 시민의 비율을 비교하는 경우, 정치 관심, 정치 지식, 정치 정보, 정당 지지파,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비율은 비관습적 정치에 참여한 시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내적 효능감, 외적 효능감, 민주주의 선호의 비율은 관습적 정치에 참여한 시민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즉 비관습적 정치에 참여한 시민의 정치적 태도는 관습적 정치에 참여한 시민의 정치적 태도보다 적극적이었다. 특히 정치참여에 매우 적극적인 시민(두 유형의 정치에 모두

참여한 경우)과 매우 소극적인 시민(두 유형의 정치에 모두 불참한 경우)을 비교하는 경우, 정치 정보(약 10배), 정당 선호도(약 7배), 정치 관심(약 4배), 외적 효능감(약 3배), 정치 지식(약 2배), 내적 효능감(약 2배)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분석 결과(<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두 유형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달랐다. 두 종류의 정치참여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치 관심과 정당 선호뿐이었다. 정치참여와 인구 사회학적 변수의 관계도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인구 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연령은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유권자를 분석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투표참여에서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념 성향도 투표와 촛불집회 등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 변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지닌 수도권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시민보다 투표 및 촛불집회 등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유권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촛불집회의 참여와 소득수준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계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투표참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정당선호(0.080)와 정치 관심(0.078)이었다. 이밖에 정보화(0.046), 외적 정치적 효능감(0.034),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0.034), 내적 정치적 효능감(0.028) 등의 순서대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촛불집회의 참여에서는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촛불집회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0.094)가 참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정당에 대한 선호(0.065), 정치에 대한 관심(0.039)의 순서로 촛불집회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표 10>의 분석 결과를 보면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논문은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불만이론과 정치자원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이론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소개했다. 불만이론이 맞다면 국정운영에 대하여 불만이 많고,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정치자원이론이 맞다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 불만이론의 요인으로 포함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관습적 정치참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비관습적 정치참여에서는 영향을 미쳤다. 이념 성향의 경우 관습적 정치참여 및 비관습적 정치참여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이념 성향의 영향력이 비관습적 정치참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했다. 정치자원이론의 중요한 요인인 교육수준은 관습적 정치참여 및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득수준은 관습적 정치참여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7년 당시 한국 시민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한계를 느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은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분노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이와 아울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강했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그동안 정치학계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정치참여의 두 유형 즉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대하여 분석했다. 특히 두 유형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달랐다. 관습적 정치참여

로 분류할 수 있는 투표참여의 경우, 정치 관심, 정치적 효능감, 정치 정보, 정당 선호, 민주주의 지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투표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반면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분류할 수 있는 촛불집회의 경우, 정치 관심, 정당 선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이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두 유형의 정치참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치 관심과 정당 선호뿐이었다. 투표참여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반면 촛불집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평가는 촛불집회의 참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부 정책에 대하여 시민이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 혹은 정부 정책이 시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 그 정책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심지어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어느 선을 넘게 되는 경우 그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촛불집회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이기도 했다. 집회 혹은 시위가 연상시키는 비합법적, 폭력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는 준법집회였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정치적 현상이었다. 또한 촛불집회는 준법과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촛불집회는 정치적 저항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동안 예외적, 비합법적으로 여겨졌던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제도적 틀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도적 대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는 새로운 형태의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촛불집회를 넘어 새롭게 등장하게 될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이에 대한 수용여

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기존 제도를 새롭게 등장할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관한 국내법은 대표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구시대에 형성된 비관습적 정치참여 관련법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할 문제이다.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동일한 정치참여 형태 내에서 나타나는 정치균열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본 논문의 분석결과 사회적 균열이 다른 정치참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령이 보여준 결과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이 정치참여의 형태의 차이까지 야기한다면 한국사회는 정치적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 매체 및 정보통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가 선호하는 정치참여 방식에 의존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만을 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균열의 심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투표참여를 대체하는가, 보완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8권 1호, 29-64.
- 김욱.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16권 2호, 27-59.
- 류태건. 2013. “한국사회 정치향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3권 2호, 47-73.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권 1호, 147-191.
- 배정현. 2014. “정치참여와 단체참여가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0권 2호, 157-181.
- 어수영·곽진영. 2002.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권 4호, 165-188.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권 4호, 287-313.
- 이재철. 2017. “2016년~2017년 촛불집회의 정치적 향의: 수도권 유권자 분석.” 『사회과학연구』 24권 4호, 61-82.
- 이재철. 2018.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정치·정보연구』 21권 1호, 187-214.
- 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탄핵광장의 안과 밖: 촛불민심 경험분석』. 서울: 책담.
- 조진만. 2011.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5권 5호, 273-296.
- 조진만. 2017. “투표와 촛불집회: 참여 요인 비교와 관계 분석.” 『의정논총』 12권 2호, 117-136.
- 최종호·허석재·권혁용. 2011. “인터넷과 정치관심, 그리고 투표행태: 17대 대통령 선거의 사례.” 『평화연구』 19권 2호, 175-197.

- 허석재. 2015. “소득 불평등과 정치참여의 양식.” 『한국정당학회보』 14권 3호, 41-67.
- Barnes, Samuel, Klaus Allerbeck, Barbara Farah, Felix Heunks, Ronald Inglehart, Kent Jennings, Hans-Dieter Klingemann, Alan Marsh and Leopold Rosenmayr.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in Five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 Booth, John and Mitchell Seligson. eds.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in Latin America: Volume 1, Citizen and State*. New York: Homes and Meier.
- Conge, Patrick. 1988. “The Concep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ward a Definition.” *Comparative Politics* 20(2): 241-249.
- Easton, David. 1990.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 Eveland, William and Dietram Scheufele. 2000. “Connecting News Media Use with Gaps in Knowledge and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3): 215-237.
- Huntington, Samuel and Joan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aase, Max and Alan Marsh. 1979.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Barnes, Samuel et al.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 Kim, Chong.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Oxford: CLIO Books.
- Kim, Wook. 2014. “A Comparative Study of the Linkage between Voting Participation and Other Forms of Participation: Comparing Korea, Taiwan, and Japan.”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32(3): 161-189.
- Milbrath, Lester and Madan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ry, Geraint, Moyser, George and Neil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Putnam, Robert.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427-460.

Rosenstone, Steven and John Hansen.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ongman.

Sherrill, Kenneth and David Vogler. 1982. *Power, Policy and Participation: Introduction to American Government*. New York: Harper & Row.

Verba, Sidney and Norman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Verba, Sidney, Nie, Norman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19.10.27    심사일: 2019.11.24.    게재확정일: 2019.12.04.
---

# Comparis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Lee, Jae Chul | Dongguk University(Seoul)

This study compares two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demographic variables, the distribution of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differed in age. While more than 50s were more active in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 20s were more active in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knowledge, internal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formation, and party preference when comparing the active and passive groups in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preference for democracy, evaluation of government, and evaluation of economic status. Third, it found that the determinants of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different.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formation, party preference, and democratic preference influenced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the determinants of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political interest, party preference, and evaluation of government.

---

**Key Words** | Political Participation,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Candlelight Vigils, Voting